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8호 【루계 제2529호】

주체108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음력 1월 1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사설

절세위인의 유훈을 받들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오늘 우리 겨레는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절절해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절세의 위인의 탄생일을 맞는 겨레의 가슴마다에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생애가 어려오고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오고야말 열의가 불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습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일찌기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이 자리잡고있었다.

그이의 한평생은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시고 겨레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거룩한 한생이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여러차례 최대의 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들던 1990년대 중엽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최전방인 판문점에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 발전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해주시였으며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기어이 끝장낼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뛰여난 예지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대용단으로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케 하시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하여 분렬의 어둠이 짙게 드리웠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놀라운 전변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진행되였으며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지,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겨레를 민족단합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묶어세우시고 자주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포용력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남조선의 정치인, 기업가를 비롯한 각계층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통일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해주시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하여 각계층의 성원들이 대중적으로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된것은 분렬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압도하고 자주통일의 기관차를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통일에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나서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제압하시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였으며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실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끝까지 이룩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밑천이다. 한평생 민족과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겨레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며 평화와 통일의 선언이다.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을 명확히 밝힌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력사적인 선언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선언들에는 북남사이의 적대관계해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온 민족이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줄기차고도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며 그것을 해결할 주인도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여기에 외세가 개입할 어떤 리유나 구실이 있을수 없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외세는 북과 남이 손잡고 화해와 단합의 새 력사를 써나가고있는 오늘까지도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는것을 여러모로 방해하고있다.

북남관계문제,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하는 외세의 눈치를 보다가는 북남관계를 순조롭게 전진시킬수 없으며 언제 가도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열망하는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나아간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운명개척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안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벌려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에 펼쳐진 새로운 전환의 흐름은 북남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힘있게 추진해나갈수 없다. 당국과 민간을 포함하여 온 겨레가 통일의 기관차가 되고 추동력이 되여야 한다.

오늘 민족의 자주통일열기는 비상히 고조되고있다. 누구나 평화를 말하고 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비등된 이 기세를 늦추지 말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함성을 더 높이 울려 민족의 밝은 래일을 앞당겨와야 한다.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협력하며 평화번영과 통일에로 나아가는것을 가로막으려고 기를 쓰고 발광하는 반통일세력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투쟁의 진두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며 온 민족을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불보다 뜨거운 그이의 민족애,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시려는 그이의 애국애족의 열정과 담대한 결단, 확고한 의지가 있어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 평화와 통일의 거세찬 기류가 흐르고있다.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신심드높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인민을 위해 바쳐진 위대한 한평생

따뜻한 해빛이 언 강토를 녹이는 2월의 봄이 왔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 찾아온 2월이지만 사람마다 이 2월에 류다른 봄의 정취를 느끼게 되는것은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워 이 땅우에 영원한 봄을 주신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오기때문일것이다.

사람들이 못 잊을 추억과 그리움속에 되새겨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에 뜨겁고도 열렬하게 관통되여있는것은 바로 인민이고 그것으로 하여 그이의 한생은 말그대로 인민을 위한 한평생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그이의 한생의 업적도 합치면 인민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오로지 인민이라는 그 성스러운 부름만을 안고 사시였다.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고 그 어떤 고생을 겪을지언정 인민들은 언제나 행복만을 누려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웅심깊은 마음이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였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디에 가시고 그 누구를 만나시여도 첫 물으심은 인민이였고 인민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제일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인민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주게 된다면 그것이 비록 자그마한것일지라도 결코 허용치 않으시였다.

어느 해인가 그이께서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고층살림집을 돌아보실 때 있은 일이다.

방들과 부엌, 목욕실과 위생실 등 살림집내부를 구석구석 세세히 살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베란다에 나서시였다.

한동안 외경을 부감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한 일군을 부르시더니 베란다의 한쪽 모서리에 낸 물빠지는 구멍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올려다 내면 어떻게 하는가고 부족점을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눈에 잘 보이는데건 안보이는데건, 큰것이건 작은것이건 할것없이 모든것을 집을 쓰는 사람들의 립장에서 세심하고 깐지게 자그마한 흠도 없이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것이 인민의 충복다운 일본새이고 마음씨라고, 혹 어떤 사람들은 옥에도 티가 있다고 요란한 살림집을 지어준것만도 대단한데 그런 사소한 흠집이야 뭐라겠는가고 할수 있는데 옥에 티는 허용할수 있어도 인민을 위한 우리 일군들의 마음의 티는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차례지는 혜택에는 자그마한 티도 없는 완전무결하고 순결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고 의지였다.

이 뜻과 의지를 자신우에 인민이 있고 자신은 인민의 아들이라는 생활신조에 담으시고 그이께서는 한평생의 날과 달을 인민복무의 그 길에 깡그리 바치시였다.

내가 인민을 위해 일해야지 누구를 위해 일하겠는가, 나는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겠다, 인생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인민을 위해 바치는 한생이라고 하시며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려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그이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것은 바로 시간이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에게서 제일 귀중하고 요구되는것은 시간이라고, 만일 나에게 누가 시간을 더 준다면 나는 그를 한평생 《천사》로 떠받들겠다고 하시였고 또 언제인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시계를 자주 보지 않는것은 시계를 보면 시간이 흐르는것이 너무 안타깝기때문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무릇 사람들은 제일 다심한 정과 따뜻한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친부모의 사랑에 비겨 말한다.

그러나 친부모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법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온 나라 대가정을 돌보시는 크나큰 보살핌이였고 그 사랑의 품은 천만자식들을 다 품어 만복을 안겨주는 어버이의 넓으신 품이였다. 그 사랑이 수놓은 헌신의 길우에는 인민들이 사용할 주사기를 두고 자신께서 먼저 맞아보고 주사침이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를 알려주겠다고 하신 감동깊은 이야기도 있고 수력발전소건설공사로 거처지를 옮겨야 하는 침수지역 인민들의 살림집문제가 걱정되시여 사랑의 대책을 세워주신 사연도 새겨져있다.

사명감과 의무만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가지가지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은 그대로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 정이 얼마나 강렬한것이였는가를 길이 전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우리 인민은 참으로 훌륭한 인민이라고, 우리 인민에게는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고 교시하군 하시였다.

주체79(1990)년 새해의 첫 아침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그이께서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더 헌신분투하겠다, 동무들이 나를 보고 이번 명절에는 잠시라도 가족들과 같이 보내라고 하는데 나라고 왜 가족들과 단란하게 명절을 쇠고 싶은 생각이 없겠는가, 그러나 나의 생각은 우리 인민에게 가 있다고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시였다.

인민은 그이를 태양으로 떠받들었지만 오히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자신의 하늘로 여기시고 오로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겹쌓이는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현지지도강행군길을 걷고걸으시고 그 길에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비상한 정력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북방의 밭머리에서 구운 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시며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는 물길굴 끝까지 몸소 걸으신 날도 있었고 모닥불에 젖은 옷자락을 말리시던 날과 달리는 차안에서 쪽잠으로 휴식을 대신한 그런 헌신의 날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강추위가 계속되던 1월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자강도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렬차안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모르자 한 일군은 그이께 이제는 새날이 시작되였는데 좀 쉬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지만 강행군이 아닌가고 하시며 그에게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수고가 많은데 후날 우리 인민들이 모두 잘살게 될 때 오늘을 옛말처럼 추억하자고 하시였다.

그날 아침 강계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지방의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이 마련해놓은 곳에 숙소를 정하고 휴식하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고맙다고, 그러나 전체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어떻게 뜨뜻한 온돌방을 찾아다니겠는가고 하시며 받들어주는 인민들을 생각하여서라도 나는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렬차를 숙소로 삼고 집무를 보시였다.

로동과 휴식, 창조와 향유는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과 활동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온넋과 정열을 다 바치시였다.

온 나라에 기적과 비약의 활력을 부어주시며 그이께서 끊임없이 울려가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동해지구의 대화학공업기지들을 련이어 찾으신 새벽길에도, 동해지구에서 서해지구에로 하루밤사이에 단행하신 강행군길에도 울려퍼지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12월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불편하신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민사랑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하나음악정보쎈터도 찾아주시고 이어 광복지구상업중심도 현지지도하시였다.

훌륭한 상업봉사기지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주체100(2011)년 12월 16일 밤에도 새해를 맞는 평양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 대책안도 몸소 보아주시며 명절을 즐겁게 쉴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그려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이처럼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연 167만 4 610여리에 달하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전국의 1만 4 290여개 단위를 찾으시였다.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고금동서에 찾아볼수 없는 감동깊은 위인의 한생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같은 인생이였다고 할수 있다고, 장군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였다고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무한한 열정, 끝없는 헌신으로 인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이야말로 인민사랑의 위대한 한평생이다.

하기에 온 나라의 남녀로소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쌓으면 하늘에 닿을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못하며 인민의 어버이, 영원한 수령으로 길이 경모하며 따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월

◎ 뜻깊은 명절의 그날에도 ◎

축원의 인사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주체62(1973)년 2월 15일 깊은 밤이였다.

온 하루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며 바쁜 시간을 보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밤깊도록 사업을 의논하시였다.

벽시계가 2월 16일 새날을 알리자 일군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께 삼가 건강을 축원하는 인사를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동무들이 나에게 주는 축하를 조국을 통일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부탁으로 알고 받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갈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그러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한 밤 을 지 새 우 시 며

주체64(1975)년 2월 16일, 그날을 집무실에서 보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녁무렵 어느 한 단위를 찾으시고 그곳 일군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비상한 통찰력과 명석한 판단력으로 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 자리에서 한 일군이 오늘이 장군님의 탄생일이라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전사가 무슨 생일인가고, 자신께서는 생일을 쇠지 않는다고 겸허하게 교시하시였다.

민족분렬의 비운을 가셔주시려고

주체65(1976)년 2월 16일 저녁이였다.

어느 한 단위의 일군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밤을 동무들과 보내기로 하였다고 하시였다.

다른 날도 아닌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에 그이를 맞이한 일군들은 저으기 흥분되여있었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밤도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잠 못 이루신다고, 조국통일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나도 통일문제를 두고 잠들수 없어 동무들을 찾았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조국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런 밤을 열밤도 새겠다고 하시며 민족분렬의 비운을 가시기 위해 우리 함께 일을 잘해나가자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갈 매 기 상 회 장 식 자 기 꽃 병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체70(1981)년 새해를 맞으며 최홍희(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선생이 삼가 올린 선물이다.

1979년 5월 공화국을 방문하여 여러곳을 돌아본 최홍희선생의 마음속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며 적극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는 1981년 새해를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태권도로 민족의 기상을 떨치며 통일을 위한 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마음을 담아 그이께 꽃병 두점을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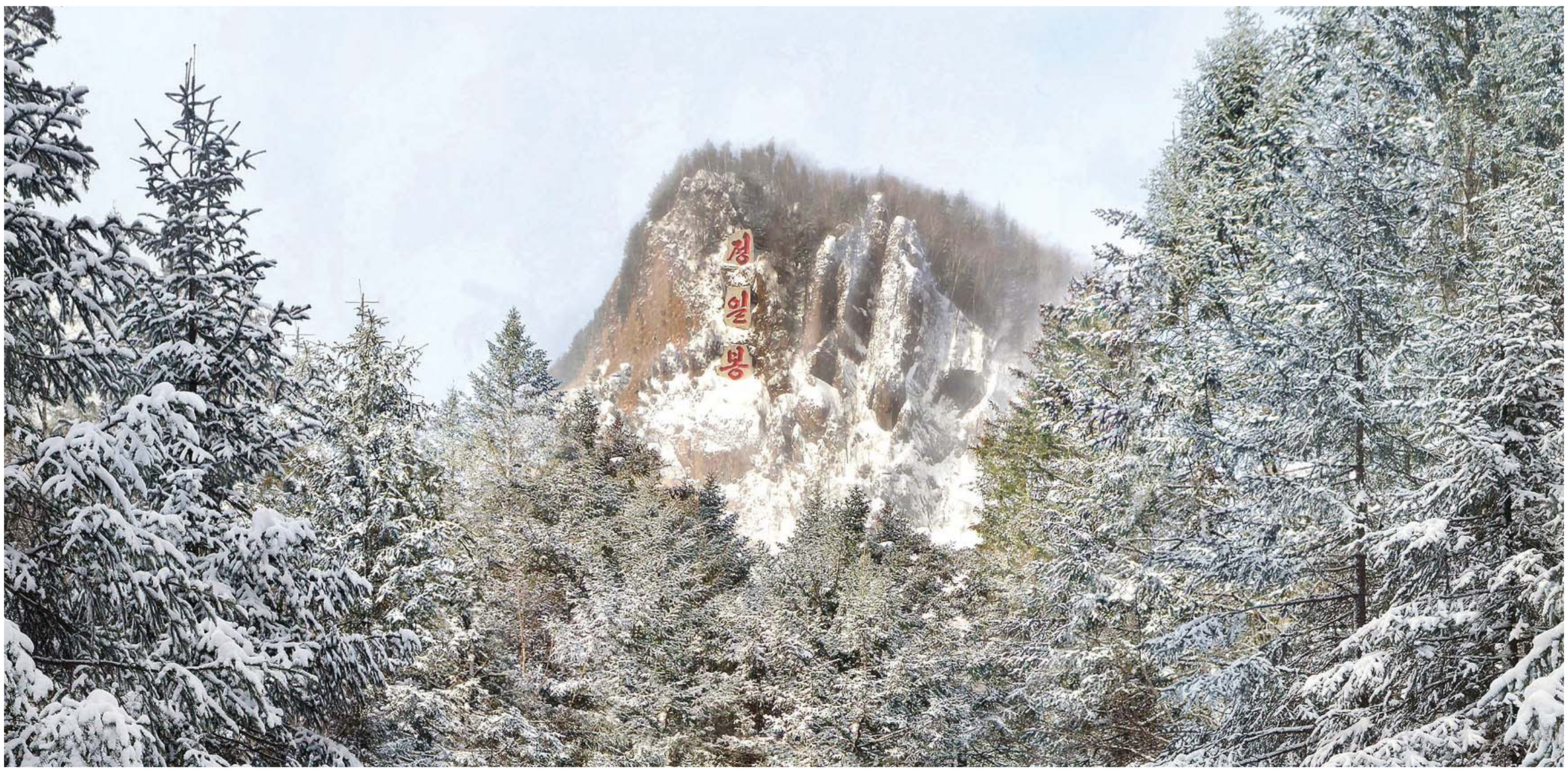
선물은 맑고 푸른 창공을 자유로이 날아예는 갈매기를 상회장식한 도자기공예품이다.

선물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의 앞길은 언제나 휘황찬란하다는 굳은 확신과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따라 애국애족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는 그의 굳센 마음이 담겨져있다.

최홍희선생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지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선물들은 모양과 형태는 같고 규격은 각각 높이 13.5 ㎝, 21.5㎝이며 아구리직경은 5.5㎝, 8.5㎝이다.

김 일 현



김정은장군 평화의 새 력사를 쓰다

온 민족과 인류가 평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밝은 미래에 대한 뜨거운 기대속에 맞이한 2019년, 뜻깊은 이해의 첫아침부터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력사적인 려정이 세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이 제야의 종소리마냥 끊임없는 메아리로 겨레의 가슴을 파고들고 대륙과 대양의 한끝까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올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을 우러러 21세기의 걸출한 영웅,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선도해나가시는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칭송과 찬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는 평화의 새로운 기류가 세차게 태동하고있다.

참으로 눈부시다.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올해의 려정은 겨레의 삶을 바꾸고 민족과 세계의 력사도 바꾸며 걸어갈 앞길을 새롭게 펼쳐준 평화의 대통로이다.

이제 조선반도에 명실상부한 평화가 도래하고있는 력사의 분기점앞에 선 나는 일출장관을 보는듯 마음설레임을 금할수 없다.

비록 철학가나 정치가는 아니지만 조선민족의 일원으로서 평화의 위대한 정치경륜으로 조선을 새로운 높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키시는 김정은장군께 진정으로 매혹된 나는 그이께서 펼치시는 가슴벅찬 평화시대의 진의미에 대하여 삼가 더듬어보려고 한다.

조선반도의 운명을 바꾼 평화의 보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3차 세계대전, 최초의 열핵대전시간표를 놓고 분분초초 가슴조이던 땅에 기적과도 같이 평화가 깃들고있다.

지지리도 조선반도를 압박하며 숙명처럼 뿌리내렸던 전쟁과 대결, 불신과 오해의 악순환을 일거에 단호히 짓부셔버린 평화의 보검은 무엇일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강력한 힘의 균형을 이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이다.

정의의 힘이 없이는 평화를 지킬수도 만들어낼수도 없다는 철의 론리, 이는 김정은장군의 평화관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이라고 보아진다.

력사적으로 조선민족은 가장 선량하고 정의로우며 남의 나라 땅에 돌 한번 던져본적 없는 평화로운 민족이였다.

외세가 강요한 분단, 더우기 정전상태의 분단으로 끊임없는 전쟁위협이 세기를 넘어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에서 평화는 사상과 정견, 제도를 초월하는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 애타는 갈망으로 되여왔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무겁게 실려있는 조선반도의 평화, 하지만 그 길이 반드시 가야만 하면서도 누구도 전도를 예측할수 없는 참으로 멀고도 고심참담한 길로 공인되여온것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력사적이며 지정학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러 주변나라들의 정치 및 군사, 경제와 외교 등 수많은 문제들까지 복잡다단하게 뒤엉켜있었기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지역을 잇는 교두보와 같은 절묘한 위치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륙과 해양의 렬강들이 전략적승부의 관건을 틀어쥐기 위한 패권경쟁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400여년전 임진왜란때 바다건너 일본이 조선봉건정부를 향해 꺼내든 명분은 파렴치하게도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것이였다.

근대에만 보더라도 조선땅에서 벌어진 로일, 청일전쟁의 참화 그리고 남의 나라 땅을 나누어가지려는 더러운 흥정끝에 이루어진 《가쯔라—타프트협정》체결,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조선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든 군국주의일본의 횡포무도한 식민지지배책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화들이 조선반도에 대한 렬강들의 강탈야망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오죽하면 한세기전 프랑스의 한 만화가가 다리밑에 있는 《조선》이라는 물고기에 주변국들이 저마다 낚시줄을 드리우고있는 한장의 그림으로 당시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되였던 우리 나라를 묘사하였겠는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분단선으로 하여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던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지고 강토의 허리에는 분렬의 표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과 70여년을 헤아리는 분단의 세월속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북과 남에 뿌리내렸으며 동족대결의 비극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여기에 겨레의 피와 땀과 눈물을 포식하며 침략과 전쟁으로 비대해지는 미국의 무제한한 야욕과 대결광증이 더해져 그리 크지도 않은 조선땅이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열점지역으로 화하였다.

분단이 장기화될수록 북과 남, 주변나라들과 미국의 판이한 정략적리해관계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조선반도를 칭칭 휘감고 평화를 질식시키고있었다.

절대로 풀수 없는 매듭으로 신전의 기둥에 애용하던 마차를 묶어놓고 이 매듭을 푸는자는 아시아를 정복할것이라고 하였다는 고르디우스, 숱한 사람들이 그의 매듭을 풀어보려다가 모두 실패하였으나 마께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칼로 단숨에 내리쳐 매듭을 풀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 전해지고있는 이 신화에는 기성관념에 대한 타파, 지략과 대담성, 강력한 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져있다.

하지만 오늘의 조선반도에서 인류는 그를 무색케 하는 새로운 신화를 눈앞의 현실로 보고있다.

그이는 정의의 보검으로 조선반도를 옥죄이던 천만매듭을 산산조각내시고 력사의 방향타를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 완전히 뒤바꾸신분, 수천만의 불안과 우려를 희망과 경탄으로 전환시키시고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녹여 화합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으신 세계가 공인하는 제일장군이시다.

그이께서 틀어쥐신 평화의 보검은 하늘이 준것도 아니며 운명의 신이 하사한것도 아니다.

김정은장군은 일찌기 10대의 나이에 사람들속에 정설화되여있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숙명론을 단호히 부정하시고 우리 나라가 대국들을 움직일수 있는 전략적요충지에 있음을 새롭게 밝히시였다고 한다.

수십년간 허리띠를 조이며 강국에로의 길을 개척해온 선대수령들의 의지와 신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그이이시고보면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자체의 힘을 키울 때라야만 조선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놓을수 있다는것을 벌써 확신하고계셨던것은 아닐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토대로 병진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강행돌파하실 때 세상사람들은 장군의 웅지를 다는 헤아리지 못했었다.

평화의 원쑤들은 마치도 북조선이 세계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는듯이 흑백을 전도하면서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였으며 북녘인민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지리멸렬시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공화국의 자강력앞에서는 언제나 취약하기만 하였다.

오히려 그 모든것은 북조선을 세계적인 전략국가에로 떠민 주마가편이 되였다고 할가, 정의의 불길앞에 맥없이 스러지는 부정의의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비범한 실천력은 력사적대업실현이라는 민족사적쾌승을 안아왔으며 대양건너 오만한 미국을, 건국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침략과 략탈이 생존수단이였으면서도 단 한번 남의 나라 포탄을 제땅에 떨군적 없다고 흰소리치던 미국을 발아래로 굽어볼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비축하게 하였다.

숨돌릴 사이없이 련속 날아올랐던 로케트들의 동음이 전쟁의 포성이 아니라 평화를 예고하는 승전의 메아리였음을 이제 와서 누가 감히 부인할수 있겠는가.

천신만고를 다하여 장군께서 벼려오신 억센 보검은 마침내 삼천리강토에 짙게 드리웠던 전쟁의 불구름을 밀어냈다.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튼튼한 포석을 깔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주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깨버리며 세계정치구도를 완전히 새롭게 편성하는 거대한 공진효과를 가져오고있다.

조선반도에 얽힌 천태의 매듭을 단숨에 풀고 오랜 세월 갈라져 고통받던 민족의 존엄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세운 공화국의 강력한 전쟁억제력, 그것은 북녘인민들이 표현한바와 같이 최상의 정의이고 승리이며 만복의 보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군의 전략적선택은 사랑을 위한것이다

조선의 위상이 력사의 분수령에 우뚝 올라선 그 시각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예상밖의 파격적인 결단으로 세상을 놀래우시였다.

사실 강국의 중대징표를 단숨에 달성하신 장군께 있어서 미국이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핵전쟁을 걸어오는 이상 이를 불로써 다스리는것은 피할 리유도 두려워할 리유도 없는 정정당당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라고 으시대면서 폭언들을 쏟아내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이니, 《코피작전》이니 하는것을 공언해나선 미국의 도발책동은 이미 극한점을 넘어서고있었으며 북녘의 민심은 천금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 불타는 의지로 끓고있었다.

평화를 진정 사랑하기에 그를 위함이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려는 결사의 의지와 열망의 분출이였다.

북의 인민들은 이미 최후결사전에서의 승리를 과학으로 굳게 믿고있었다.

김정은장군이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에 대하여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을 때 그분께서도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장래를 두고 누구보다 깊은 사색을 이어가시였다.

평화는 진정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평화를 전쟁이나 무장충돌같은것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인류의 보편적가치인 평화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학자들은 평화의 주제를 극단적인 물리적폭력의 제거는 물론 사회정의의 실현, 인권의 옹호와 함께 고통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 등으로 확대하였다.

총포성없는 전쟁, 평화없는 정전이 긴긴세월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에서 평화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있다고 할수 있다.

장장 한세기이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분렬리간책동의 롱락물이 되여 망국의 설움과 식민지노예생활,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 희생과 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해온 우리 민족이였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한을 품고 쓰러졌으며 얼마나 쓰라린 상처들이 민족사의 갈피갈피에 깊이 새겨져있는가.

만일 이 땅에 전쟁이 터진다면 동족상쟁의 비극이 또다시 펼쳐지고 아물지 않은 겨레의 상처우에 처절하고 싸늘한 전란의 재가 덧쌓이게 될것이였다.

겨레의 운명, 조선의 흥망성쇠와 미래를 책임지신 장군께 있어서 평화는 전체 조선민족의 가장 열렬한 소망인 동시에 민족구성원들의 삶과 가치, 기쁨과 슬픔 그 모든것을 포괄하는 신성한것이다.

우리 겨레모두가 소중한 자신의 살붙이이고 분신이였기에 그이께서는 북과 남의 인민이 피 한방울 흘리지 않는 승리, 사랑하는 조국강토에 한점 흠집도 내지 않을뿐더러 통일강국의 창창한 앞날까지 담보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실 구상을 안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결단을 내리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 조선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을것임을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판문점선언,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것을 확약한 9월평양공동선언은 일파만파로 격랑의 도가니를 일으켰다.

겨레의 생명과 리익, 평화를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통큰 결단을 내리신 전설적인 영웅, 진정 그이의 심장에서 뿜어져나오는 무한대한 사랑의 힘은 몇십개의 수소탄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장군의 열화같은 사랑은 미친듯이 질주하던 핵전쟁마차를 짓뭉개버리고 차겁게 경색되였던 북남관계도 봄눈처럼 녹여버렸으며 이 땅에 거창한 민족적화해와 평화의 대하가 사품쳐흐르게 했다.

목적이나 결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데 대하여서는 누구나 인정한다.

허나 김정은장군처럼 사랑으로 전쟁을 길들이는 위대한 전략적선략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급부상시키면서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위인은 력사에 없다.

장군의 위대한 선략은 우리 겨레, 우리 민족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뜨거운 조국애로부터 출발한다.

지난해와 올해 설날아침에 발표된 그이의 신년사 그리고 세월을 주름잡으며 공세적으로 취해진 파격적이며 실천적인 행보들, 이 모든것은 평화에로 향한 그이의 발걸음이 확고부동한 목표와 뚜렷한 전략을 가진 《충격적인 승부수》임을 강조한다.

어리석게도 대조선제재가 평양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눈먼 사람들에게 2015년의 8월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때에도 세계는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시계를 지켜보고있었다.

당시 호전적인 미군부는 남조선을 내세워 그 무슨 《지뢰폭발사건》과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정세를 최극단에로 몰아갔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여 조선반도에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도발기도를 제지시키시였으며 동시에 주동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심으로써 전쟁의 난파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전무혈의 기적적인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그 나날 세계는 어떤 강적도 눈아래로 굽어보시며 오직 필승불패의 영웅신화만을 창조하시는 최고령도자님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불타는 사랑과 증오, 천재적인 지략과 강철의 담력을 똑똑히 보았다.

인류력사에는 크고작은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여있다.

평화로운 나날보다 전란의 나날이 더 많았다고 하는 그 력사속에 무훈과 용맹으로 이름떨친 장군들과 유명무명의 영웅들 또한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동서고금 어느 갈피에도 평화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찾을수 없다.

총 한방 쏘지 않는 강력한 평화공세로 원쑤들을 무릎꿇게 하신 김정은장군, 그이는 사랑의 억센 힘으로 평화의 대문을 열고 민족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는 전설적위인, 인류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장군의 발걸음따라 평화의 대통로가 열린다

지난해 4월 분렬과 대결의 원한이 콩크리트처럼 응어리진 땅, 끌나지 않은 전쟁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에 장군의 거룩한 발자욱이 찍혀졌다.

판문점은 쌍방의 화력이 가장 밀도높게, 가장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였다.

이곳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으로 치달아오른적은 얼마였으며 아츠러운 총성과 수십년 묵은 지뢰의 폭음은 얼마나 많이 터져올랐는가.

총포성은 울리지 않아도 피가 얼어들고 끌나지 않은 전쟁을 실감하게 하던 땅, 높이가 불과 한뼘도 되나마나한 분리선이 넘을수 없는 《철의 장벽》이 되여 북과 남을 남남으로 갈라놓고 차디찬 랭기와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던 한많은 지점이였다.

이 위험천만한 판문점분리선을 김정은장군께서는 보무당당히 넘으시였다.

장군의 발걸음, 그것은 끊어진 길을 잇는것만이 아닌 조선민족의 숨결을 잇는 성스러운 발걸음이였으며 대결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을 평화의 상징으로 새롭게 태여나게 한 사변적인 발걸음이였다.

단순히 담력과 배짱으로만 그 발걸음의 무게를 헤아릴수 없다.

거기에는 장군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스스로 걸머지신 력사적책무가 무겁게 실려있으며 말로써가 아니라 대범하고 과감하며 용기있고 결단력있는 실천으로 진정한 평화의 길을 튼튼히 닦으시려는 불굴의 의지가 만장약되여있다.

조선반도평화의 개척자, 선구자가 되여 언제나 겨레의 맨 앞장에서 광명한 앞길을 열어나가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을 누가 감히 꺾을수 있고 허물수 있겠는가.

하여 그이께서는 평양이나 서울이 아닌 판문점을 새로운 력사의 출발선으로 삼으시였으며 사랑에 불타는 심장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면서 8천만 겨레의 심장에서 분렬의 장벽을 일거에 무너뜨리시였다.

그후 싱가포르의 쎈토사섬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의 두 수뇌분들이 서로를 향해 마주 걸어가는 격동의 화폭이 펼쳐졌다.

우리 겨레는 물론 전세계의 초점을 모으며 힘차게 내짚으시는 장군의 발걸음은 그대로 경천동지의 뢰성과도 같았다.

세상사람들이 《세기의 악수》로 격찬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계기로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싹이 또한번 키돋움을 한것이다.

평화는 바란다고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라 투쟁으로써 마중해야 할 전취물이다.

걸음걸음 앞을 막아나서는 장애와 온갖 도전들을 주저없이 맞받아나가시며 자신이 선택한, 온 겨레가 열망하는 평화의 길을 한치도 에돌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장정은 언제나 주동적이면서도 파격적이고 속전속결식의 공세전이였다.

련이어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도 오르시여 평화에로 향한 큼직큼직한 자욱을 거침없이 이어가시는 그이의 발걸음은 기성의 관념과 뿌리깊은 적대의식을 불사르는 과감하고 새로운 투쟁방식의 련속이였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서 전쟁의 구조와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시려는 장군의 예지와 과학적인 결심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정도라고 할수 있는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채택되였다.

그에 따라 쌍방의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던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군사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과 남의 철도와 도로들을 련결하며 조선반도전체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류례없는 투쟁이 벌어진다.

최극단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던 조선반도에 불과 몇달사이에 이처럼 넓고도 튼튼하며 실질적인 평화의 길이 열리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명백한것은 김정은장군의 발걸음따라 평화의 대통로가 뻗어가고있다는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장군께서 내세우신 평화라는 대의명분앞에서 초대국이라 자처하던 미국도 대화마당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으며 북과 남사이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더욱 뜨겁게 고조되고있다.

오늘 김정은장군께서 결사의 실천으로 열어가시는 평화의 길이야말로 조선반도의 안정과 무궁한 번영을 위한, 나아가서 인류가 리상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철의 대통로임을 우리 민족은 긍지높이 자부한다.

그것은 이 길에 조선민족의 리익과 요구는 물론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리상과 지향이 폭넓게 담겨져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범인류적인 가치이며 최고의 지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평화에로의 길은 간고험난하며 때로 값비싼 희생을 동반하기도 한다.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진행된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의 폐기, 로케트발사시험의 중단과 같은 과감한 실천적조치들에 이어 장군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앞길이 멀다고 주저앉을수 없고 쉬여갈수도 없으며 시련과 난관이 막아선다고 하여 돌아서거나 물러설 자리는 더욱 없는 길이여서 평화를 위한 장군의 발걸음은 이렇듯 세상을 놀래우는 줄기찬 대약진으로 이어진다.

평화의 길에 력력히 새겨진 장군의 로고와 무수한 헌신의 자욱자욱은 천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투쟁의 기치가 되여 전민족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장군의 발걸음에 따라나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그 무엇으로써도 거스를수 없는 용용한 대하가 되여 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넓혀가고있다.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드시려는 그이의 아름다운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게 될 그때에 가서 세계는 달라진 조선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그리고 력사책에 금문자로 써놓을것이다.

조선반도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으시고 인류평화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이시라고!

* * *

온갖 불공정과 무질서, 폭압과 침략이 란무하는 세계는 조선반도에 격류치럼 흘러드는 평화의 대하를 끝없는 찬탄의 눈길로 바라보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을 인류사회를 구원할 희망의 등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주변나라들은 물론 세계각국의 국가수반들이 앞을 다투어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뵈올것을 열렬히 희망하고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정치전문매체가 2019년은 김정은위원장의 해로 될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관심을 모았다.

평화의 창조자,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진두에 높이 모신 조선의 2019년은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과 사변들로 더욱 충만될것이다.

이 땅에 깃든 평화는 조선민족의 무궁번영을 힘있게 추동하고 가까운 앞날에 지구행성은 조선식, 김정은식으로 새롭게 변모될것이라고 나는 굳게 확신한다.

재일동포 오진서

(《로동신문》에서 전재)

끝없이 이어지는 인민사랑의 길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 애민헌신의 력사는 오늘도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달리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오늘도 끊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신 인민을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드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다.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고 수령님들의 평생의 사랑을 다 합치여 인민의 념원과 꿈을 모두 이루어놓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이다. 인민들이 당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은 인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런분이시다.

마식령스키장,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류경치과병원, 릉라인민유원지, 미래상점,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룡악산샘물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이 이런 요구, 이런 기준에 의하여 건설된 인민의 향유물, 나라의 재부들이다.

인민의 웃음소리, 생산의 동음높이 울리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과 생산기지들에는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는 인민사랑의 열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애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지난해 례년에 보기 드문 폭열이 휩쓴 삼복철기간에도 그이께서는 함경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도와 시의 수십여개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인민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시고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에 나가시여 부지를 직접 료해하시고 농장건설 전망계획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만한 온실면적이면 도내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으시며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날과 달을 맞고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애민헌신에 의하여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나라의 자립경제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다.

인민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의 동력이고 그 어디에서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것이 사회주의강국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론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를 빛나게 구현하여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하여 어느 한 재로씨야동포는 《조선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가 계신다. 그분의 탁월한 령도력은 그대로 조선의 찬란한 미래이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솟아오를 조국의 앞날을 축복한다.》고 하였으며 조국방문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재우즈베끼스딴동포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가 계시여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며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미래가 약속되여있다.》고 하였다.

조선을 다녀간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의 언론인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은 조선방문에서 얻은 결론이다. 김정은령도자의 깊은 관심속에 조선에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고있다.》고 하였으며 이딸리아 치따 아뻬르따방송은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인민의 복리와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인민의 수령, 위대한 령도자이시다.》라고 칭송하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이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로 무르익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려명거리

애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은 지난해 북변땅의 풍성한 감자작황에도 깃들어있다.

주체105(2016)년 11월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자농사를 보다 높은 과학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료해대책하시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찾으시였다. 농장의 제1작업반 감자포전을 돌아보시면서 북부고산지대 감자농사에서 제일 난문제인 낮은 기온과 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기술일군들과 포전담당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축산에 힘을 넣어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문제, 감자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등 감자농사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또한 현지에서 농기계와 뜨락또르들의 보유실태와 가동률도 료해하시였다.

중흥농장을 비롯한 삼지연군안의 전체 근로자들은 여러차례나 자기들의 군을 찾으시여 감자농사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 감자대풍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10월 북방의 찬눈을 맞으시며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만t능력의 감자저장고안에 빈자리를 찾아볼수 없도록 무드기 쌓여있는 감자산을 보시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신듯 기뻐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례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7월에 삼지연군에 와서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놓고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고 하였는데 군에서 그 과업을 집행했다고 거듭 높이 치하하시면서 도와 군의 책임일군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일군들과 함께 감자무지에 앉으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한 나라의 령도자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감자의 재배와 생산, 가공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며 로고를 바친 례는 없을것이다.

감자산풍경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려보신 풍경이였다.

북변땅에 펼쳐진 감자산풍경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밝은 래일을 그려보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단상

소백수의 물소리를 들으며

한겨울의 혹한속에서도 얼지 않고 용용히 굽이쳐흐르는 소백수.

하많은 사연을 전하여주는 그 물소리를 들으며 2월의 소백수가를 거니는 나의 심경은 깊어만진다.

이 땅 수천수만의 산곡마다에 흐르는 내물과 다름없이 태고적부터 조용히 흐르던 소백수가 자기의 랑랑한 물소리로 민족의 대통운, 민족의 영광을 전하기 시작한것은 2월의 대경사를 제일 먼저 간직한 그 순간부터였을것이다.

유정한 소백수의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면 군복입은 어리신 장군님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오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받들어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따뜻한 손길이 미쳐와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이게 된다.

백두밀영고향집을 감돌아 흐르는 소백수의 물결우에 위인의 한생이 비껴있어 그처럼 숭엄하게 들려오는 물소리이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시장철 쉬임없이 흐르는 소백수의 그 열정으로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며 력사에 길이 빛날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소백수의 맑은 물이 혹한속에서도 얼지 않고 줄기차게 흐르듯이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조국과 인민을 밝은 미래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불멸의 송시 《광명성찬가》에서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라고 쓰신것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에 대한 열렬한 격찬이며 또 한분의 위인을 모신 민족의 행운에 대한 긍지높은 선언이였다.

소백수는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인 항일의 그날에 백두산 위인들께서 거니시며 나누신 뜻깊은 이야기를 오늘도 전하고있다.

조국해방의 려명이 하루하루 밝아오던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앞에는 먼저 간 혁명동지들의 몫까지 합쳐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민들이 바라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나는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다 하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수행하도록 하고야말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보느라니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의 크나큰 행운이 가슴가득 안겨온다.

2월의 정기와 기상을 온 강산에 뿌리시며 척척척 우렁찬 발걸음소리와 함께 인민의 마음속에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백두의 기상과 담력, 천재적인 지략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존엄과 국력은 오늘날 비할바없이 높아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 삼천리에 평화와 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고성호

민족의 숙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시려고

조국통일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고 의지이다.

그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그이의 친필비를 건립하도록 하시였고 주체85(1996)년 11월에는 판문점을 찾으시여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민족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의 지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크나큰 업적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함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던 그 나날 열려진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단합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쳤다. 북남사이에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토론회, 민족통일대축전 등이 련이어 진행되여 삼천리가 통일의 환희로 설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인사들을 만나주시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평양을 다녀간 남녘의 인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호방하고 자신심이 넘치시는분》, 《너그러우면서도 쾌활하신분》, 《통이 크고 호탕하며 모든것에 환하시고 정치적지도력이 뛰여나신분》으로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기어이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축하연설과 해마다 하시는 신년사들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현명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신년사에서 밝히신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조선반도에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과 남을 관계개선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될수 있도록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신년사의 과감한 제의가 빛나는 실천으로 이어져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장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훈풍과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였다.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범한 결단과 넓은 포옹력, 숭고한 민족애에 의해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으며 이 땅우에 북과 남이 관계개선에로 나아가고 평화와 번영을 창조해가는 격동적인 새 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에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시고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의지와 비범한 령도에서 겨레는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김정은국무위원장 연구모임》 결성

남조선의 진보적인 청년학생운동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이 1월 31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을 결성하였다.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은 2018년 1월 《21세기한국대학생련합》, 《청춘의 지성》, 대학생당, 대학생노래패련합을 비롯한 진보적인 청년학생운동단체들로 구성된 련합조직으로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이들은 2018년 북남수뇌회담을 계기로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만나뵈온 모든 사람들이 위원장님의 모습에 대해 칭송을 거듭하고있다, 《한》반도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대학생들은 김정은위원장님에 대해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김정은국무위원장 연구모임》을 결성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북의 인민들이 왜 김정은국무위원장을 존경하는지, 김정은국무위원장을 만나뵈온 사람들모두가 왜 위원장님을 훌륭하게 바라보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김정은위원장님의 략력과 주요활동, 말씀집 등을 깊이 연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기 위한 사업과 김정은위원장님에 대한 연구내용발표회, 대학생토론대회, 론문대회와 같은 학술토론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김정은위원장님의 풍모와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겠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더욱 높아가는 흠모와 칭송의 열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들이 계속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인터네트들에는 《김정은위원장님 신년사로 밝아온 새해, 기분이 참 좋네요.》, 《통이 크고 대범하신 김정은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정은위원장님의 진심이 엿보이는 신년사입니다. 눈물이 절로 납니다.》, 《아침부터 지상파방송에 온통 김정은위원장님 신년사소식뿐.》, 《김정은위원장님 정말 멋지시다.》, 《김정은위원장님, 대번에 반했어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진솔한 언행 우리 심장 틀어잡네. 과시 위인이시야.》, 《김정은위원장님은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너무 멋있는분이다.》, 《배려심 깊고 강단도 있고 평화를 위해 내딛는 그 발걸음소리 쿵쿵 경향천리에 퍼져가네 감동!》과 같은 흠모의 글들이 수없이 올랐다.

또한 《김정은위원장님이 새해벽두부터 중국방문을 시작으로 외교행보에 나섰다.》, 《김정은장군님 눈물나게 그립다.》, 《김정은위원장님 정말 바쁘다 바쁘셔. 빨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김정은위원장님께서 〈한〉반도평화의 새 력사 써주시기를 희망한다.》, 《김정은장군님 만수무강하세요.》와 같은 글들도 인터네트들에 올랐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강단있고 배짱있는 지도자이시며 훌륭한 위인이시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력사적인 발걸음 내딛는 김정은위원장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 《김정은위원장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싶다.》라며 저마다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시

2 월 에 부 르 는 그 리 움 의 송 가

김 태 룡

눈이 내린다
산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우리 장군님의 정과 사랑이
뜨겁게 차넘치는 내 조국 강산에
그리움의 흰눈이 내려쌓인다

세월이야 춘하추동 바뀌여
꽃피고 열매맺는 계절도 있건만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녹지 않는 눈
광명성 솟아오른 2월의 이 봄이면
더더욱 사무치게 안아보는
그리움의 흰눈이여

어버이를 못 잊는 천만자식들
간절한 그 마음 담아 내리고 내리는가
송이송이 눈꽃마다 그리움을 실어
북변의 저 끝 삼지연뜨락에
삼가 추억깊은 생각을 우리 얹노라

류달리 눈이 많이도 내리던 날
금시라도 원수님 반겨맞아주실듯
눈발에 옷자락 날리며
환히 웃고계시는 장군님모습
너무도 생시인것만 같아
우리 원수님 눈시울 뜨거이 적시며 우러르신
아, 장군님의 정깊은 그 미소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는
그이의 어깨우에 하염없이 눈은 내리 쌓이는데
가슴속에 묻어오신 하많은 사연
예서 다 아뢰시는가
끝없이 솟구치는 그리움의 정이여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격정에 젖어 떨리는 음성
일군들도 쏟아지는 눈물 걷잡지 못하는데
아, 내리는 저 흰눈도 흐느껴 전하는가
피눈물의 12월을 넘으신 우리 원수님
장군님 맞고 맞으신 세월의 찬눈
어느 하루도 잊으신적 없다고
선군길에 말리울새 없으신 사연깊은 그 단벌솜옷
어버이숨결처럼 오늘도 고이 안고오셨다고
온 나라 집집을 다 찾아주시며
불은 잘 드는가 손수 구들목을
다심한 손길로 쓸어보시면서도
숱한 그 보금자리 어느 아래목에서도
젖은 팔소매 한끝마저 말리울새없이
눈보라 천리길에 다시 나서시던 우리 장군님

어느해였던가
정월의 찬바람 맞으며 찾으신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산갈이 쌓인 명주실더미에
포근히 손을 얹으시고 하시던 그 말씀
지금도 우리 가슴 아프게 저미누나

자신은 예순이 퍽 지났지만
아직 한번도 비단옷은 입어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 인민들이
다 비단옷을 입게 될 때
자신께서 입으신 야전솜옷을
한번 갈아입어보시겠다 하시였으니

그날을 애타게 기다려
필필이 비단산을 쌓아온 간절한 마음들
꼭 오신다고 기다림에 잠 못들던 마음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주신분은
아, 김정은원수님

사람들이여, 다 아는가
비단천 꽃바다 이불폭포앞에서
일파만파로 갈마드신 원수님 심정을
장군님의 눈보라한생 가슴에 맺혀
오히려 기쁨앞에서 아픔 금치 못하셨구나

정녕 알고나 있었던가
보배마냥 일일이 쓸어보시던 비단이불
그이 마음속으로 더듬으신것은
그리움속에 간직된 장군님의 젖은 솜옷
솜이 다 잦아든 그 단벌솜옷인줄을

어이 그 곳만이랴
훌륭히 일떠선 공장에 가시여서는
장군님의 고생과 맞바꾼 공장
장군님의 넋과 숨결이 슴배인 공장이라시며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한이 가슴에 맺히시여
《유복자공장》이라 불러주시였나니

그 《유복자》들이 힘찬 동음울리며
인민의 행복 더해줄 때마다
장군님께 아뢰고싶은 간절함
그리도 크시여 그리도 사무치시여
좀처럼 마음달랠길 없으시던 우리 원수님

세월은 아픔을 잊게 하는 약이라 했다
세월따라 삭막해지는것 그리움이라 했다
하지만 흐르는 날과 함께 늘어만 가던
그 아쉬움 원수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마를줄 모르는 그리움의 샘이 되였나니!

그리움의 그 샘은 충정의 정화
다함없고 진함없는 헌신의 원천
모든 기쁨과 환희, 희열의 전부를
그대로 장군님께 드리고싶으신
우리 원수님의 불타는 열망의 대하

—장군님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습니까!

—장군님을 모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연한 파수의 바다에 서시여도
파일대풍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은
그 심정 너무도 북받쳐오르시여
휘늘어진 가지의 탐스런 사과알들을
그리도 소중히 줌에 감싸쥐시고

쏟아져 나오는 갖가지 식료품앞에서도
그이 가슴에 밀물쳐온것은
장군님을 모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거듭거듭
누구에게라 없이 터치신 격정이였다

보시였으면 진정 장군님 보시였으면
이 땅이 환하도록 웃으시였을것을
평생의 시름 다 푸시였을것을
고패치는 생각 깊어질수록
원수님 끝없이 가고가신 길
바치신 로고는 그처럼 눈물겨웠거니

폭염이 쏟아지던 지난해 삼복철
새형의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보아주시며
하늘 가득히 환한 미소 지으신 우리 원수님
마음은 벌써 전차에 실리여
끝없이 끝없이 달리신 곳 그 어디였던가

하늘이 알아 하늘에 묻고
강산이 알아 땅에 물으랴
아버지와 한뜨락에 산다고
아버지마음 다 아는 자식이 없듯
우리 정녕 헤아릴수 없는
오, 원수님의 깊으신 심중의 세계

하건만 말하고싶구나
그이께선 장군님생각을 안고계셨다고
희소식을 어서 알려드리고싶은
못 견딜 충동으로 마음속에 재촉하신
그 길은 장군님께로 가고가신 길이였다고

장군님의 사색이 비껴간 이 땅 어디나
기적의 성공탑 세우시려는 불의 진정
평생 시련의 고비고비 넘으신 장군님
부디 기뻐하시게
황홀한 별천지 펼쳐드리실 고결한 의리
그 진정은 수수천년
파도소리만 울리던 명사십리에
희한한 절경 펼쳐가고
북변의 한끝에 락원의 산간도시 세워간다
그 의리는 문명이 응축된 새 거리들에
층층이 행복의 창조물 일떠세우고
황금산, 황금해, 황금벌의 새 전설을 낳는다

무엇을 하나 구상하시여도
장군님 바라시던대로
무엇을 하나 펼치시여도
장군님 만족하시게
오직 이 하나의 일념으로
심장을 태우시고 온넋을 바치시는 원수님

그이 계시여 거세차게 나붓기는 우리 국기
조선의 국호는 누리에 빛나고
장군님 뜻으로 장군님 념원대로
이 땅엔 창조와 비약의 날과 달이 흐른다

—나는 한생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방식, 생활방식을 따를것이며 이제부터는 장군님을 대신하여 내가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열것입니다

오 하늘도 머리숙일
숭고한 의리의 세계 강철의 의지로 펼치시며
우리 원수님 헤쳐오신 날과 달은
장군님 바라신 강국으로 빛나는 세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한 세월이였다
불러만봐도 저절로 눈굽이 쩌릿한
폭열강행군, 철야강행군, 눈보라강행군…
원수님 헤쳐오신 그 자욱자욱우에
인민의 웃음 만복의 화원으로 피였고
평화번영의 새 력사도 태동하였나니

끝없이 내리는 눈이여 말하여다오
분렬된 강토의 아픔 안으시고
장군님 헤쳐오신
통일로고의 멀고먼 찬눈길을

이렇게 깊은 밤길이
통일에로 가닿아 있다면
백리, 천리를 더 가고싶다 하시던 장군님
그 백리, 천리를 우리 원수님
통일장정으로 이어가시였어라

다시 새겨보자 겨레여
새로운 평화번영의 신호탄이 날아오른
판문점 력사의 그 4월에
삼천리를 진감한 원수님의 발걸음소리

분렬의 동토대가 으깨여져나가는
후련하고 통쾌한 진폭이였다
판문점에 새겨진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
천만근의 그 무게 한가슴에 다 안고
분리선을 넘으신 원수님의 자욱이였다

어찌 우리 다 알수 있으랴
분렬세월의 삭풍 흩날려버리고
평화번영의 화창한 봄을 부르신 그날
원수님 간절히 그려보신것은
뜨거움의 불길로 솟는 장군님 생각인줄

판문점의 4월에 이어 평양상봉의 9월
꽃물결 설레는 평양의 거리거리
남녘의 사절들과 함께 누비실 때에도
한평생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장군님 걸으신 수만리 머나먼 길들을
마음속에 다 걸어보신 원수님
백두의 산정에도 오르시였더라

9월평양공동선언!
겨레를 위한 특대사변 민족의 경사
삼천리에 뜻깊게 펼쳐놓으시고
백두산악에 거연히 오르시여
삼천리를 품어안아 환한 미소 지으실 때

오, 그 미소에서
겨레는 장군님의 영상을 뵈웠다
장군님 통일의 웅지 무르익히시던
백두산에 통일환희 펼쳐놓으신
원수님의 은공에 감사의 큰절 드렸다

—김정은위원장님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다
—8천만겨레가 우러르는 통일령수님

그날에 폭풍쳐 이 강토에 터져오른
끝없는 경모 숭배의 열기
2월의 백두산에 눈이 되여 내리는가
흰눈덮인 백두산
숭엄하다 성산의 장쾌한 설경이여

웅건한 천만산악이 창공을 치받고
천리수해 거느려 장중한 백두산아
너 오늘 쩌렁쩌렁 온 강토 뒤울리게
절세의 위인을 길이 노래하라
원수님 불멸의 업적 길이 칭송하라

장군님 숨결이 이 땅에 어떻게 흐르고
장군님 리상이 어떻게 위대한 현실로
이 나라에 눈부시게 펼쳐졌는가를
통일을 위하신 장군님 성스런 한생이
평화번영의 새시대와 더불어
어떻게 삼천리에 영원한 력사로 흐르는가를

장군님 보시면
장군님 아시면 기뻐하실것만 같은 그 생각에
힘겨워도 천백배 의지 가다듬으시며
천만고생 락으로 여기시며
력사의 돌풍 맞받아나가시는 우리 원수님

그 줄기찬 세월의 힘찬 전진우에
장군님심장의 박동은
우리 삶의 희열, 긍지속에 높뛰고
장군님의 성스런 위업은
무궁한 래일에로 줄기차게 흐르거니

우리는 대대손손 환희속에 맞이하리라
광명성절 2월의 찬란한 해돋이를
사회주의강국의 위대한 승리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는
8천만겨레는 통일의 아침 맞이하리라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우리 장군님의 성스러운 력사가
위대한 김정은시대로 끝없이 흐르는 이 땅에
오, 2월에 부르는 그리움의 송가는
세세년년 영원히 울려퍼지리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통일조국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와 회견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대표는 2월 16일은 우리 겨레에게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게 될 대통운을 안겨주고 겨레의 무궁창창한 앞날을 기약해준 대경사의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회세의 위인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실현하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겨레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통일의지와 고매한 덕망, 과감한 결단으로 대결과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분단장벽에 파렬구를 내시고 남북삼천리에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더욱 빛내이시며 장군님의 통일유훈을 현실로 꽃피워가고계신다.

국무위원장님께서는 확고한 조국통일의지와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력사적인 남북수뇌회담과 남북선언발표의 특대사변들을 안아오시여 온 겨레에게 통일의 밝은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시였다.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던 우리 민족끼리의 숭엄한 화폭들을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정에 련이어 펼쳐주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담대한 결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삼천리강토에는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하기에 지금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에 대한 남녘 각계층 민중의 숭앙심은 날로 뜨거워지고있으며 경향각지는 위인흠모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최고령수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최상최대의 영광이며 긍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계시기에 2월의 봄은 영원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삼천리가 하나로 되는 통일조국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남녘의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통일애국의 호소를 받들어 뜻깊은 올해에 남북관계발전과 자주통일운동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무》 개막

광명성절경축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무》가 13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아크릴화 《만민의 축원》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공화국 인민들의 애국심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할 일념안고 전국의 미술창작가들과 애호가들이 창작한 150여점의 소나무주제의 미술작품이 출품되였다.

조선화 《억센 소나무》, 《찬서리를 이겨내며》, 아크릴화 《룡악산의 푸른 소나무》 등에는 사시장철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억세게 자라는 소나무가 생동한 화폭으로 형상되여있다.

전통적인 조선화기법으로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립체감이 나게 창작한 조선화 《력사국의 자랑을 전하며》, 《푸른 하늘을 떠이고》와 수예 《소나무와 참매》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에 비낀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강인담대한 기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사랑해온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가 조선화 《푸르러 설레이라》, 《모란봉에서》, 《초봄의 소나무》, 도자기 《송학상감장식 호로주전자》, 나무조각 《소나무와 참매》를 비롯한 미술작품들에도 어려있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미술창작 및 교육기관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는 27일까지 진행된다.

본사기자

수기

그 은정 못 잊어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고보니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보낸 꿈만 같은 나날들은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온 날과 달의 련속이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길에 나섰다가 체포되여 옥살이를 하여온 우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수령님과 당을 믿고 수십년 동안 형언할수 없는 악형과 모진 박해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켜온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데려와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하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품에 안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공화국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어 남쪽에서 꺼져가는 운명이라 하여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잃었던 청춘을 되찾고 만복을 누릴수 있었다.

우리 가정에 돌려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정녕 잊을수 없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남쪽의 철창속에서 청춘을 빼앗긴 총각할아버지였던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였을 때에는 은정깊은 결혼식상을 보내주시고 그후 옥같은 딸을 낳은 우리 부부가 감사의 정을 담아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였으며 태여난 애기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어주자는 친필과 함께 사랑의 선물도 한가득 안겨주시였다.

그 사랑속에 축복이는 탁아소로부터 유치원, 소학교에 이르기까지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자라나 지금은 강반석혁명학원에서 공부하고있다.

어버이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변함없이 내세워주시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비롯한 중요한 대회들에 불러주시고 한생을 두고 잊지 못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우리들이 조국의 이름난 명승지들에서 마음껏 휴양생활을 하도록 해주시고 생일상들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육친의 사랑은 실로 끝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축복이를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대표로 불러주시였다.

축복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어엿하게 성장하는것을 보면서 나는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모셔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 따사로이 흘러들고있음을 온몸으로 절감하군 한다.

몇해전 축복이가 예술공연에 출연하여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른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축복이의 노래를 격정속에 따라 부르며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행복의 꽃수레에 태워주신 절세의 위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진정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장중보옥처럼 귀중히 아끼고 보살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웅심깊은 사랑은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위대한 사랑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수록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 모셔야 하겠다는 마음속 결심이 더욱 굳세여진다.

리재룡